

AVENU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MARCH 2011



ORIGINS



오피의 사람들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라. 걸어가는 인물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 낮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 낸다.” 줄리언 오피는 대량생산을 위해 고안된 LED 사인이나 비닐 페인팅 같은 소재로 매우 정교한 색채의 인물화와 조각을 선보인다. 이는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복제인가라는 후기 모더니즘의 주제에 관한 대답이다. 3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문의 735-8449

ART OF TOUCH

임주연 작가에겐 옷을 입을 것보다 벗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가는 카메라 앵글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탈의 과정을 찍는다. 그런 다음 촬영한 사진 중 몇 점을 채택해 부분 클로즈업한 뒤 캔버스에 확대해 작품을 그린다. 작가는 옷을 입고 벗음으로써 닿았다 생각하면 곧 떨어지고 마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최근 작가는 ‘탈피’의 의미를 풍경으로까지 확장했다. 작가는 유리창에 풍경이 비친 순간, 빛이 유리에 닿았다 반사하는 순간 등 모든 접촉의 순간에 의미를 둔다. 그래서인지 이번 전시의 주제는 <닿는 풍경>이다. 3월 31일까지 스페이스 비엠에서. 문의 797-3093



임주연 'Untitled', Oil on Linen, 91x72.7cm, 2013

연두의 염두(念頭)

정연두의 전시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다. 그는 삶과 죽음, 자본주의의 폐해 같은 거대 담론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작가는 중년 남녀가 댄스 교습소에서 춤추는 모습을 기록하고, 양로원에 사는 노인들의 추억담을 재현하며, 조악한 세트를 지어서라도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준다. 그간 거처온 주제마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뿌리는 작가를 보면 그에게는 작품의 소재를 찾는 일이 떨어진 밤을 쭉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닐까 궁금해진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뉴욕의 6구역을 배경으로 한 2010년 작 ‘식스 포인츠’와 걸 그룹 크레용팝과 팬들이 참여한 설치미술 퍼포먼스가 선보여진다. 3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문의 1577-7595

브리티쉬 팝아트의 원류

영국 팝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해밀턴의 회고전이 열린다. 그는 지면 광고 속 이미지를 콜라주해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했던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 있게 만드는가?>(1956)로 ‘팝아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전파한 작가다. 그러나 동시에 ‘팝아트’의 존재에 가려져 이후의 작업이 제대로 회자되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다. 영국 미술계 거장의 사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에서는 1950년대 팝아트부터 2011년 그가 마지막까지 그렸던 작품까지 해밀턴의 디자인, 회화, 사진, 설치미술, 영상 등을 두루 만날 수 있다. 5월 14일까지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문의 www.tate.org.uk



리처드 해밀턴 'Interior II', 1964. Tate ©The estate of Richard Hamilton